

빠르게! 정확하게!

독서크로키-경제편

크로키(croquis): 대상의 구조와 형태의 특징을

단시간에 재빨리 포착하여 그리는 기법

“‘독서크로키’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고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이 미리 접하셔도 좋습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이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을테니까요. 물론 여기서 사회 지식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적이 노력만큼 잘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릴 때 책을 읽지 않아서 국어가 어렵다.’라는 대답을 학생들에게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도요. 독서와 수능 국어가 무슨 상관성이 있기에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두 암묵적으로 독서를 통한 다양한 배경지식 습득이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고민에 대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답변 드립니다. 공부를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다독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늘 국어 성적이 좋은 것을 보면 독서가 국어 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답의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 이유는 바로 수능 시험의 기조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수능 국어의 명칭은 ‘언어영역’이었습니다.(2013학년도 수능까지) EBS와의 연계도 없었고 선천적인 국어 감각이나 독해력이 시험 성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던 때였습니다. 언어영역이 타 영역들과는 달리 만점이 120점(2004학년도 수능까지)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수능의 취지가 언어영역의 변별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때였지요.

2014학년도부터 ‘언어’영역이 아니라 ‘국어’영역으로 명칭이 변화하면서 수능은 조금 더 공교육에 친화적이고, 교과 과목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험으로 그 방향이 변했습니다. EBS와의 연계 출제가 그 증거지요. 물론 2022학년도 수능부터 그 연계율이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의 바탕에는 공교육을 잘 소화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습니다. 이제 국어도 다른 과목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그리고 노력한 만큼 점수가 오르는 과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공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어 성적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배경지식을 공부해야 할까요?

고등학생들에게 배경지식이란 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된 수많은 시험지입니다. 시험에 반복되어 출제된 개념들을 정리하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다양하게 문제로 접해보는 것이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크로키’처럼 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포착하여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독서크로키의 첫 번째 시리즈, 경제편은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 해결과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부디 책을 통해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수능에 적합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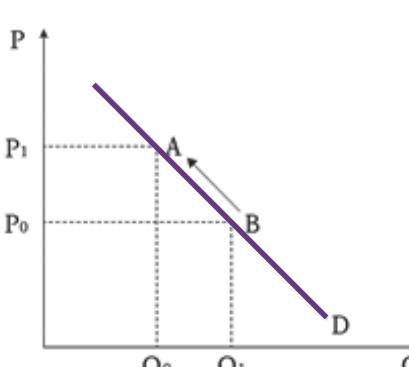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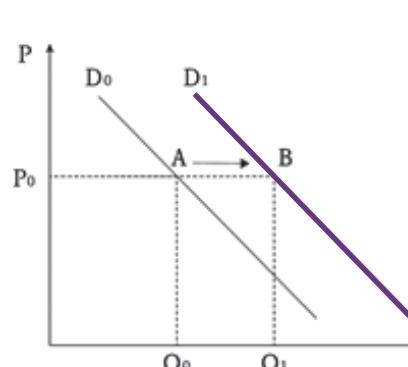
10분만 더!

1.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점이 다를까?

수요(demand)란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수요량은 그 욕구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말한다.

그래프가 등장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프는 이해를 돋는 도구일 뿐이다. 아래 표에는 2개의 그래프가 있다. 공통적으로 D라고 표현된 ‘수요곡선’이 그려져 있다. ‘수요곡선(D)’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품의 다양한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하나의 선으로 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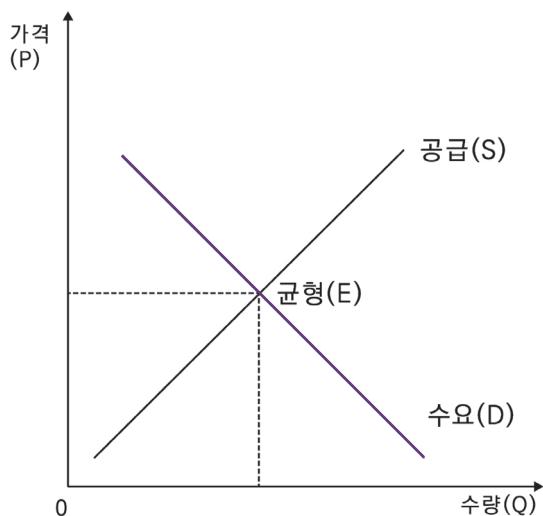
두 그래프에서 수요곡선은 모두 우하향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수요곡선의 형태로서, 이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는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이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요의 법칙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가정했을 때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의 거의 모든 모형에 등장하는 기본 법칙이지만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우하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곡선(D)선상에서의 이동 (B→A)이동: 수요의 감소 	그리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D_0 \rightarrow D_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서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화(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수요량 변화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화 다양한 수요 변화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자의 소득 변화 ② 소비자의 선호 변화 ③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변화 ④ 소비자의 미래 예상

10분만 더!

- 수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자로 가정할 때) 소비 행태에 대한 현상 및 결과에 대해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그 부분은 4.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서 확인할 것이다.

2. 그래프 읽는 방법



분명 국어 시험인데 그래프, 표, 숫자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분야가 바로 경제 제재이다. 경제 제재에서 그래프가 없는 문제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정도이니, 그래프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자.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은 서술적인 방법, 수리적인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기하학적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프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변수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응 시켜 변화를 표현해 준다.

그런데 가격(원인)과 수량(결과)을 나타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배운 수학 지식에 따르면 가격이 x축, 수량이 y축에 있어야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나타낸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A. Marshall)이 처음 이렇게 사용한 이후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왔다고 한다. 가격과 수량의 관계에서만 가격이 y축에 있다는 것에 주의하자.

이 점에 주의하며 실전 크로키부터 연습해보자.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 및 해설

문제	1.	2.	3.
정답	④	②	③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아담 스미스 중심의 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재고가 쌓이고(세이의 법칙이 유효하다면 재고가 쌓일 수 없겠지?) 실업률이 증가(기업의 재고가 쌓이는 마당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도 어렵고 고용도 창출하기 어렵겠지?)하는 이 경제 침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빠르게 한 획!

Ⓐ A 그러나 B: 그러나를 기점으로 B가 이 지문 전체의 중요한 제재

정확하게 한 획!

Ⓐ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고전학파의 설명력×

Ⓑ 경제침체를 설명해 줄 새로운 이론이 필요

2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유효수요이론’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요,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가 공급 및 고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이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상품을 못 사고, 결국 재고가 쌓인 거라고 해석한 거야.)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감원으로 이어지며, 구매력을 감소 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빠르게 한 획!

Ⓐ A 이때 B: A가 과거를, B가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게 한 획!

Ⓐ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세계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유효 수요(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에 있다고 본 이론→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늘려야 함.

Ⓑ ③문단에서는 유효수요를 늘릴 방안이나 구체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 가능→읽으면 예측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

3 ① 케인즈는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예측한 대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시작했어. 이제부터 특히 고전학파와 다른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주의 깊게 보자!)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없는 생산은 공급 과다 및 실업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공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절약은 분명 권장되어야 할 미덕이지만(어도 세계 대공황 이전까지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와 공황을 불러올 경우, 절약은 오히려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는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문단에서 고전학파는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케인즈는 고전학파와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하게 한 획!

Ⓐ 케인즈

- 유효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
- 소비와 투자만이 대공황을 이겨낼 방법
- 절약=소비를 위축시키는 악덕
- 정부가 나서서라도 소비를 권장해야 함
- 국가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고전학파와 상반
- 유효수요이론의 수용은 곧 수정자본주의의 시작

4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점차 안정되어 가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또 한

10분만 더!

1.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인정, 가능할까?



최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가 있다. 바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이다. 멕시코 아래에 위치한 이 작은 국가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비트코인’에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였다. 법정통화란 법화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어떤 금전적 채무에 대해 지급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즉 국가적 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폐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법화는 그 신용과 가치 때문에 다른 형태의 화폐를 법화로 인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엘살바도르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미 달러화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화로 인정하여 그 영향과 실효성에 대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법화를 통해 투자, 관광,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엘살바도르의 희망과는 달리 세계 은행을 비롯한 주요 세계적 기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세계 은행은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을 돋는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는 첫째, 채굴의 투명성이 저조하며 둘째,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점에서 비환경 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구현의 지원을 거부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암호화폐는 거시경제,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엘살바도르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장을 밝혔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70%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 기반 산업의 취약성과 살인율이 전세계 1위에 달하는 불안한 치안,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하였을 때,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엘살바도르의 활용 양상에 따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전자화폐는 어떻게 다를까?

위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인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 역시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전자화폐와 가장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암호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법정통화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자화폐와는 엄연히 다른 화폐이다.

전자화폐는 IC카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을 일컫는다. 가장 대중화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교통카드이며 최근 스마트폰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모바일 전자화폐의 시장은 점차 더 확대되고 있다.